

장성 관광객 1000만명 시대 연다

일상 회복 후 첫 여름휴가 관광객 맞이 분주...군비 포함 3년간 총 100억 사업비 확보

“여름철 휴가 장성으로 오세요.” 장성군이 ‘일상 회복’ 이후 처음 맞이하는 올여름 휴가철을 기해 주요 관광지 홍보에 나서며 등·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열어간다는 방침이다.

죽령산 편백숲, 백양사, 남창계곡, 장성호 수변길, 황룡강변 정원, 필암서원 등 장성의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규모 인공조림지인 죽령산 편백숲은 편백과 삼나무 등 상록수가 1150ha에 펼쳐졌다. 산림청이 지정한 ‘22세기를 위해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숲’에 이름을 올렸다.

천년고찰 백양사는 백암사, 고불대, 쌍계루, 애기단풍 등 그림 같은 풍광을 품고 있다.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체험 등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는 행사가 인기몰이를 한다.

입암산 기슭에 자리한 남창계곡은 여섯 골짜기 사이로 시원하게 계곡물이 쏟아지는 절경이 ‘장성 8경’에 꼽힌다.

주말마다 1만여명이 찾는 장성호 수변길, 사계절 꽃이 피어나는 황룡강변도 빼놓을 수 없는 여행지다.

이뉴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오를 필암서원은 조선의 사회·경제상과 학자들의 생활상 등을 품고 있다.

이 밖에도 장성군은 물통골 폭포, 불태산 역사테마길, 추암호 수변생태탐방로, 상무평화공원 등 새



장성 입암산 남창계곡은 가족단위 여름 여행지로 제격이다.

<장성군 제공>

로운 관광 기반을 구축했다.

장성군은 지난해 전남도가 주관한 ‘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사업’ 공모에 선정돼 군비 포함 3년간 1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필암서원을 중심으로 장성의 선비문화를 널리 알리고, 세계화를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우리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필암서원, 백양사 등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문화·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다”면서 “지역 특화 콘텐츠와의 연계로 가치를 높이고 품격을 더해 ‘장성 관광 1000만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정남진장흥토요시장 3년만에 ‘축제의 장’

9일 공연·경품 추첨 등

정남진장흥토요시장이 개장 17주년을 맞아 9일 다채로운 행사로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번 기념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 개최를 건너뛰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3년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행사는 1부 식전공연, 유공자 표창 등 기념식과 2부 초대 가수 축하공연, 경품 추첨, 페이스페인팅 및 인형만들기 등 관광객들과 함께 참여하는 화합 한마당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정남진장흥토요시장은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된 2005년 7월 2일 지역특산물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전국최초 문화관광 토요시장’으로 개장했다.

이후 2015년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전통시장’, 2016년 ‘한국관광의 별’과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어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까지 꾸준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상목 정남진장흥토요시장 상인회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아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인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이 재도약 발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군, 월출산 권역 관광지 경관 조성

전남도 공모 선정...백운동원림·월남사 주변 쉼터·둘레길 등

강진군이 전남도 경관 조성사업 공모에 월출산 권역이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성전면 일원으로 월출산, 백운동원림, 월남사 등 강진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를 주목받는 곳이다.

군은 달빛한옥마을, 월남마을, 안운마을 일원에 10억원을 투입해 쉼터 및 보행로 조성, 성전 녹차밭 주변 둘레길 정비 등 월출산 트레킹 프로그램과 연계해 특화경관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성전면 월남소류지 일대에는 2억원을 들여 수목 식재, 전망데크 조성, 대운 정비 및 석축 계단 설치, 파고라·벤치 정비 등 주변 경관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2023



강진 월남소류지 전경.

년 봄 이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경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월출산 권역 관광자원이 풍성해져 지금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강진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나주 농산물로 레시피 개발해요”

시, 공공기관 임직원 비대면 요리체험 평생학습 눈길

나주시가 혁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도심과 농촌을 잇는 비대면 농산물 요리 체험 평생학습을 운영해 신선한 반응을 얻고 있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의 지역사회 정착과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집콕 라이브, 슬기로운 팜(Farm)의 재발견’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촌마을은 대표 농산물을 각 가정에 전달하고 교육생들은 온라인 화상 플랫폼(줌-Zoom)에서 요리전문가의 지도를 통해 새로운 요리 레시피를 개발·체험하는 방식이다.

교육생들은 마을 특산물, 자랑거리, 주민들을 소개하는 홍보 영상을 실습 전 시청하고 농촌마

을과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화담, 덕실, 이솔촌, 도래, 흥련, 옥실, 금안한글, 예코왕국 등 8개 마을이 참여해 다양하고 신선한 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한다.

요리 실습은 오는 10월까지 나주시평생학습정보방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한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 30여명(회당)을 대상으로 월 2회 진행된다.

개발된 레시피와 마을별 홍보영상은 나주시정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돼 지역민과 상생의 가치를 공유할 예정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g@kwangju.co.kr



강진군 농기계 순회 수리 실시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은 강진군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강진군 3개 읍면 오지 지역에서 농기계 순회 수리를 실시했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제공>

화순군, 소규모 복지시설 급식 관리·지원

전남 지자체 첫 50인 미만 위생·안전·영양관리 등

화순군이 전남 지자체 최초로 소규모 사회복지 시설 급식을 관리·지원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화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관련 위생·안전·영양 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화순군의 지원센터 신규 설치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6월 1일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최효승)과 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을 맺고 협약에 따라 지원센터는 7월 중 설치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화순군과 동신대 산학협력단은 지원센터를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노인·장애

인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위생과 영양관리, 이용자의 급식·영양 등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영양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센터 전문 영양사가 해당 시설을 방문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등록 ▲건강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과 레시피 제공 ▲조리사·요양보호사·시설 이용자 대상 식생활 교육 ▲위생·영양관리 방문 지도 등 관리·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센터 운영으로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균형 있는 영양관리, 급식 위생 관리, 식생활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7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화순군을 포함해 5개 지역에 신규 설치될 예정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침단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